

부와 가난에 대해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부 나 가난은 하느님 앞에서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부자와 좋은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를 얻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부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얻는 방법과 사기와 폭리를 이용하거나 물적, 인적 자원을 남용하여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는 방법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사람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 네 가지 핵심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책임.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가진 것의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잘 관리하는 사람”(I베드로 4,10)이 됩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는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자

신만을 위해서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2.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소유 당하지 말고 우리가 소유합니다. 부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하인이 되지만, 사람이 돈을 숭배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부는 사람에게 엄격한 폭군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정당성. 소유물의 획득과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손쉽게 획득하는 소유물은 정당하게 얻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정당한 분배는 정의로운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체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체계가 공정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랑. 사랑이 있을 때, 재물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압박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되고, 계급 간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더 신성한 것과 신화(神化)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물론 일반적으로 금식과 수행은 신화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토 13장 참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의 신비는 우리를 사람에서 신으로 변화시킵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오십시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347-407)



주 일이나 축일에 거행되는 성찬예배 때마다 교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본다면, 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적으로 대단한 환희이고, 또한 하느님께는 그 얼마나 큰 영광과 찬양이 될 것이며, 그곳에 있는 이들의 영혼에는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 년에 (성탄절과 부활절 때) 겨우 한두 번 정도만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제가 어떻게 골고루,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영혼에 대하여, 우리 몸에 대하여, (영혼의) 불멸에 대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창조 세계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에 대하여, 천사들의 본성에 대하여, 악마들의 사악함에 대하여, 마귀의 계략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바른 신앙에 대하여, 오염되고 변질된 종파와 분파들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올 때만 저는 이 모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마태오 22,10; 14)

주간 예배 안내

* 1월 25일 (화)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한국 정교회 유튜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줌(zoom) 단체 모임

매 주일 오후 2시	신데즈모스, 예비 신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소 식

대교구

■ 대교구 의회 공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제18회 대교구 의회가 줌으로 열리오니, 각 성당 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링크 주소는 각 성당에서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 시대의 영적 신앙생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당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교구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왼쪽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검색어 'orthodox korea' 혹은 '한국 정교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줌(zoom) 링크 주소는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성 요한 클리막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으로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 웃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를 제거하면 눈물이 많아진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후, 죄가 파괴된 후에는 눈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표지 그림 설명



나자렛,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7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은 구약성서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작고 외딴 시골 마을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나자렛 예수'라 불리는 것은 공생애 시작 전, 대부분을 나자렛에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와 보호자 성 요셉의 고향이며, 대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성모 희보)을 알린 곳이다.(루가 1,26~38 참조) 성 엘레니 모후가 326년쯤 성모님의 집터에 성당을 지었으나 이교도에 의해 파괴되고 복구되기를 다섯 번이나 반복되었다. (1839년, 스코틀랜드 화가 데이비드 로버츠가 나자렛을 방문해 그린 수채화)